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. 이미지투데이 제공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현직 경찰관이 찾아가 담임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.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.당시 A 씨는 '나의 직을 걸고 B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'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A 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.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다. 수사에 나선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.도 교육청의 고발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.A 씨 측은 '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'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던 A 씨가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일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.경찰 관계자는 "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"고 했다.